

KEF 경총
KOREA
ENTERPRISES
FEDERATION

「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재택근무 현황 조사」 결과

2022. 6.

< 요약 >

□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조사(5월 17일~27일 기준)

※ 매출(20년 기준) 상위 100대 기업(공기업 제외) 중 설문에 응답한 66개사 분석

① 매출 100대 기업의 72.7%, 현재 재택근무 시행 중 ; 27.3% 미시행(사무직 기준)

- ▶ 응답기업의 72.7%가 22.5월 '현재 재택근무 시행 중'으로 지난해 3월 조사 당시 재택근무 시행 중인 기업 비중(91.5%)보다 18.8%p 감소
- ▶ '재택근무를 시행한 적 있으나 현재는 미시행' 중인 기업(27.3%)의 77.8%는 4.18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재택근무 중단

② 재택근무 방식 : 유형 다양화

- ▶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방식은 '필요인원 선별 또는 신청(33.3%)', '교대 순환형(27.1%)', '부서별 자율 운영(25.0%)' 등 다양한 방식 채택
- ▶ 작년(21.3월)에는 기업이 전사적으로 재택근무비율 등을 결정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했다면,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는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업이 증가

※ 교대조 편성, 출근비율 설정 등을 통한 '교대 순환형' 방식을 활용하는 기업은 지난해 58.7%에서 27.1%로 감소

③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재택근무 비중 변화 : 축소 39.6%, 변화없음 37.5% ; 확대 0%

- ▶ 4.18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재택근무제도 변화 유무에 대해 '재택근무 축소' 39.6%, '변화 없음' 37.5% '부서별 재량화' 20.8%, '기타' 2.1% 순으로 응답

④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재택근무제도 운영 이유, 단계적 일상 회복 43.8%

- ▶ '단계적 일상 회복 차원' 43.8%, '직원들의 재택근무 선호 반영' 20.8%, '정부의 재택근무 장려 지속' 16.7%, '기타' 20.8% 순으로 응답

⑤ 재택근무 체감 업무생산성* 정상근무 대비 '90% 이상' 응답 29.0%에 불과

* 응답자(인사담당자)의 주관적 평가를 묻는 문항으로, 정상출근 대비 생산성 비율임.

- ▶ 정상근무 대비 '90% 이상'이라는 평가는 지난해 40.9%에서 올해 29.0%로 감소한 반면, '90% 미만'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59.1%에서 올해 71.0%로 증가

⑥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활용 여부, 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(51.5%)

- ▶ 코로나 위기 상황이 해소된 이후의 재택근무 활용 여부에 대해 51.5%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
- ▶ 향후에도 재택근무가 활용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은 48.5%

⑦ 코로나19 이후 사무공간 : 거점형 오피스 신설 22.7%, 공유형 오피스 활용 18.2%

- ▶ 사무공간의 변화가 없는 기업이 62.1%로 주를 이뤘고, 이외 '거점형 오피스 신설' 22.7%, '공유형 오피스 활용' 18.2%, '좌석수 축소, 업무공간 분리 등 리모델링' 9.1% 순 응답 (복수응답)

1

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(2022년 5월 사무직 기준)

▶ 시행 중 72.7% ▶ 미시행 27.3%

■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가 매출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「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재택근무 현황 조사」를 실시한 결과, 응답 기업의 재택근무 '시행' 비율은 72.7%로 조사됨.

※ 본 조사는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(공기업 제외, '20년 기준)을 대상으로 전화·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이며, 응답 기업 수는 66개사

※ 조사 기간('22.5.17~27)은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,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(4.18~)한 이후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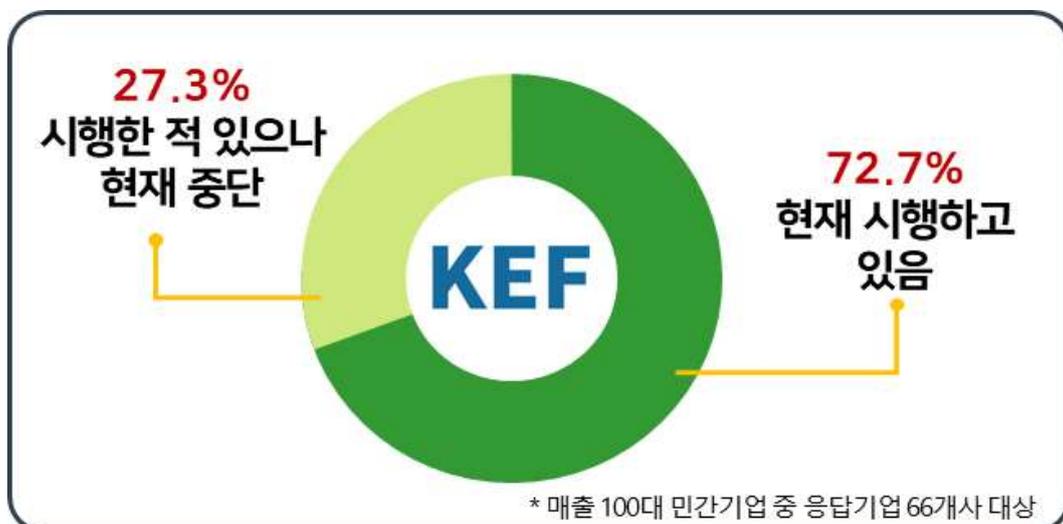
○ 응답 기업의 72.7%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를 '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(이하 사무직 기준).

- 이는 지난해 조사* 당시보다 현재 재택근무를 '시행 중'이라는 응답이 18.8%p 감소(91.5%→72.7%)한 결과로,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등 정부의 방역 정책 변화**가 기업들의 재택근무 여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.

* ('21.3월 조사 결과) 재택근무 시행 중 91.5%, 코로나19 이후 시행한 적 있으나, 현재는 하지 않음 2.4%, 시행한 적 없음 6.1%

** 조사시점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: ('21.3월) 수도권 2단계, 비수도권 1단계, ('22.5월)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

<그림 1>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시행 현황



- '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, 현재는 시행하지 않는다'는 기업은 27.3%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기업 중 77.8%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(4.18~) 이후 재택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됨.

* 재택근무 중지 시점 : 4.18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'이전' 22.2%, '이후' 77.8%

-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 기업들의 재택근무 중단 시점은 4.18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'이전' 22.2%, '이후' 77.8%로 조사됨.

- 한편,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를 시행한적 없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('21.3월)에서는 6.1%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없는 것*으로 나타남.

* '21.3월 이후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를 활용하기 어려웠던 기업들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재택근무를 일시적으로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음.

2

재택근무 방식 : 다양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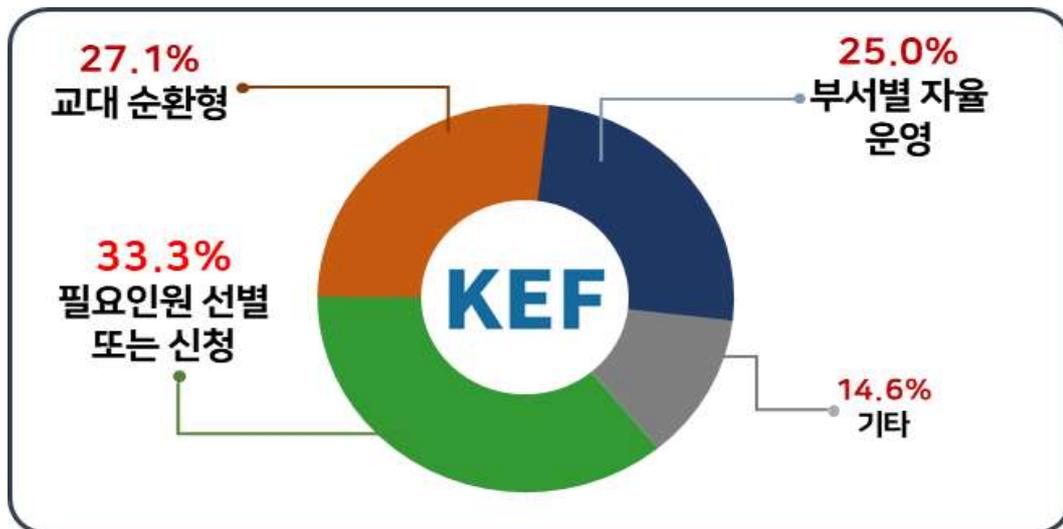
- ▶ 필요인력 선별 또는 신청 33.3%
- ▶ 교대 순환형 27.1%
- ▶ 부서별 자율 운영 25.0%

○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'필요인원을 선별하거나 신청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응답이 33.3%로 가장 많았음.

- 이외 '교대 순환형'(27.1%), '부서별 자율 운영'(25.0%)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기업도 다수인 것으로 조사됨.

* 구성원을 2조 또는 3조로 나눠 교대방식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사무실 근무인원을 일정비율(ex. 30%, 60%)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식

<그림 2>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방식



*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중인 기업 대상 설문

⇒ 이는 지난해(21.3월) 조사결과*와 비교해 작년에는 회사 전체적으로 재택 인원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기업이 많았다면, 올해는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

* 2021년 3월 조사 결과에서는 '교대조 편성, 출근비율 설정 등을 통한 순환방식'(58.7%), '재택근무 필요인원 선별 또는 신청 방식'(29.3%), '필수인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 재택근무'(9.3%), '기타'(2.7%)

- 필요인원을 선별하거나 신청을 받아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 비중은 33.3%로 지난해 29.3%에 비해 소폭 증가했고, '교대 순환형'으로 응답한 기업들은 27.1%로 지난해 58.7%에서 대폭 낮아짐.

- 또한, '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'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작년엔 응답자의 9.3%를 차지했으나, 올해는 없었음.

- 한편 회사 차원의 재택 비중을 지정하지 않고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재택인원을 정하는 '부서별 자율 운영'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25%에 달함.

○ 이 밖에 기타응답(14.6%)으로 '특정 요일(ex. 주1회)만 재택근무를 시행'하거나, '직급/직책별로 다르게 시행' 하는 등 기업마다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됨.

3

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후 재택근무 비중 변화

- ▶ 재택근무 축소 39.6%, 변화 없음 37.5%, 재택근무 확대 0%
- ▶ 부서별 재량화로 전환 20.8%

-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기업들 중 39.6%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재택근무비율 하향 조정, 재택일수 축소 등 '재택근무 축소'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남.
 - 또한,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이후에도 기존 수준의 재택근무를 유지했다는 '변화없음' 응답도 37.5%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.
 - 한편, 재택근무 여부, 규모 등을 부서별 업무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'부서별 재량화' 응답은 20.8%였음.
- 이 외 재택근무 시행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 등 '기타' 응답은 2.1%

<그림 3> 4.18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후 재택근무 비중 변화



*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중인 기업 대상 설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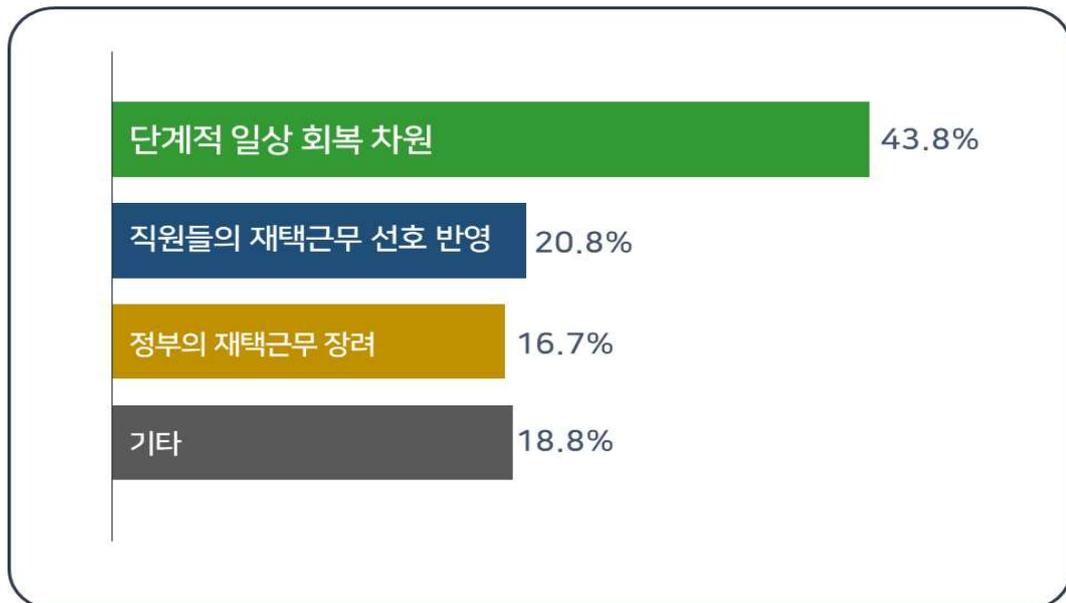
4

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유지 이유

- ▶ 단계적 일상 회복 차원 43.8%
- ▶ 직원 재택근무 선호 반영 20.8%, 정부 재택근무 장려 16.7%

-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기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계속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'단계적 일상 회복 차원'(43.8%)으로 조사됨.
 - 이는 다수의 기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이후 전면 출근에 따른 충격 및 사내 확진자 증가 등을 우려해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
- 그 외 '직원들의 재택근무 선호 반영'이라는 응답은 20.8%로 나타났고, '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재택근무 장려 지속'이라는 응답은 16.7%인 것으로 나타남.
- 반면, 조직 특성 고려, 일하는 방식의 변화 필요성 인지 등 '기타' 응답도 18.8%로 조사됨.

<그림 4> 4.18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재택근무 유지 이유



*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중인 기업 대상 설문

5

재택근무시 체감 업무생산성

▶ 90% 이상 응답 29.0%, 지난해와 비교시 11.9%p 감소

- 재택근무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대해 ‘정상근무 대비 80~89%’라는 응답이 30.6%로 가장 높음.

※ 해당 설문의 경우 응답자(인사담당자)의 주관적 평가를 묻는 문항으로, 정상출근 대비 재택근무시 생산성 비율임. 재택근무를 시행중인 기업과 시행중이지 않은 기업 모두에게 설문하였으며, 위 설문은 62개사 응답 기준

- 또한, 재택근무시 근로자 업무 생산성을 정상출근 대비 90%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9.0%, 70~79% 21.0% 70% 미만 19.4% 순으로 조사됨.
 - 70% 미만이라는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‘60~69%’는 11.3%, ‘50~59%’는 6.5%였으며, 생산성이 ‘50% 미만’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1.6% 존재하였음.
- 재택근무 업무생산성에 대한 전체 응답을 평균할 경우 정상출근 대비 79.0% 수준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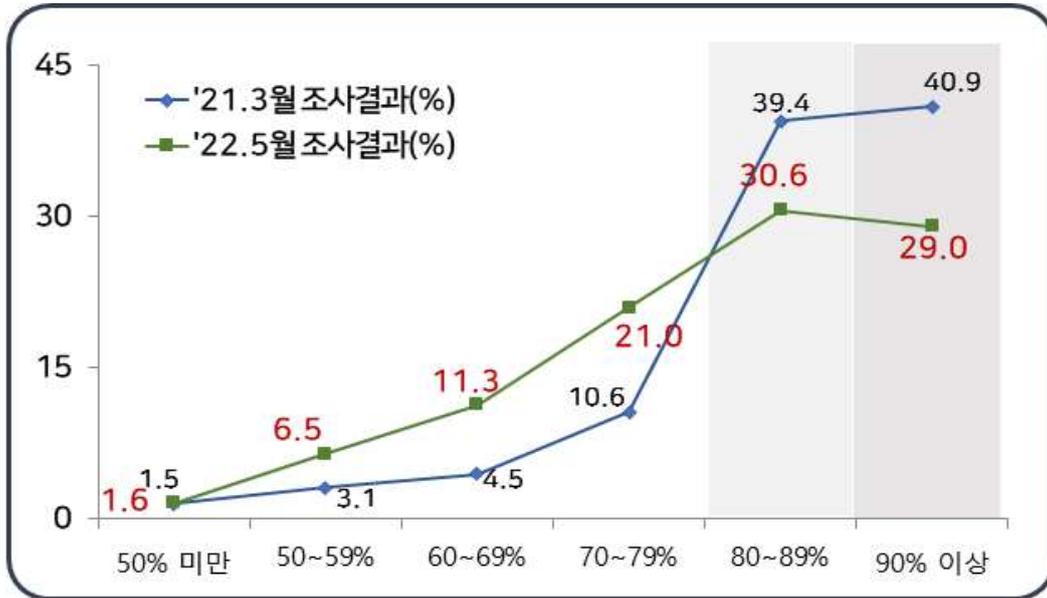
<표 1> 인사담당자가 평가한 재택근무시 생산성

(2022년 5월 기준, 정상출근시 생산성 = 100)

구분	70% 미만			70~79%	80~89%	90% 이상
	50% 미만	50~59%	60~69%			
응답 비중 (전체 100%)	19.4%			21.0%	30.6%	29.0%
	1.6%	6.5%	11.3%			

- 재택근무 업무생산성을 지난해 조사와 비교한 결과, 정상근무 대비 ‘90% 이상’이라는 평가는 지난해 40.9%에서 올해 29.0%로 감소한 반면, 90% 미만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59.1%에서 올해 71.0%로 증가

<그림 5> 인사담당자가 평가한 재택근무 생산성의 수준별 응답률 비교



※ 62개사 응답 기준

⇒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재택근무 생산성에 대한 평가가 점차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기업들의 재택근무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.

※ 조사시점별 인사담당자 체감 생산성 비교

- 생산성 90% 이상으로 평가한 비율(%) : (20.9월) 46.8 (21.3월) 40.9 (22.5월) 29.0
- 전체 응답을 평균하여 산출한 생산성(%) : (20.9월) 미산출 (21.3월) 83.4 (22.5월) 79.0

6

코로나19 해소 후 재택근무 활용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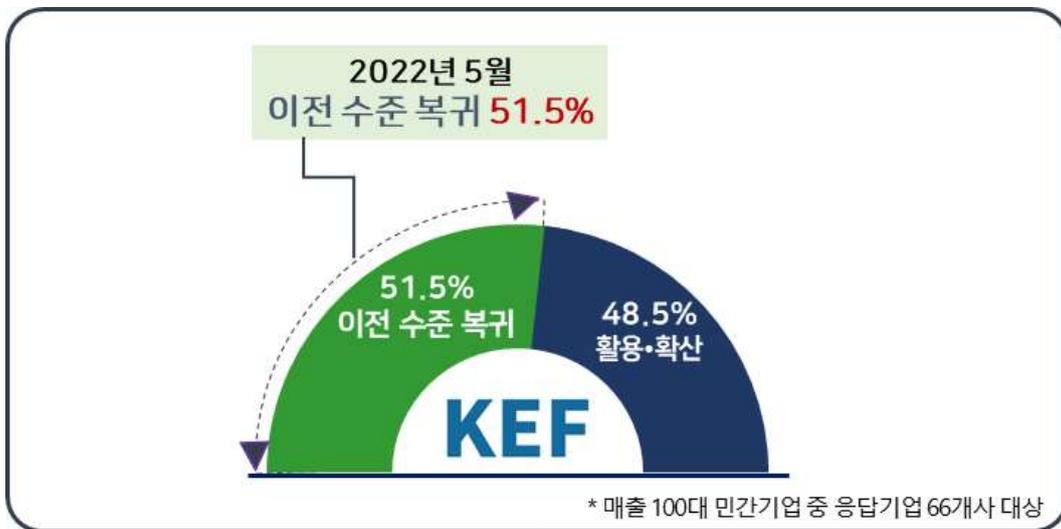
▶ **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 51.5%, 지속적으로 활용 48.5%**

○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된 이후의 재택근무의 지속적 활용·확산 여부에 대한 설문에 51.5%가 '코로나19 이전 수준(낮은 활용도)으로 돌아갈 것'으로 전망한다고 응답

- 반면, '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지속적으로 활용·확산될 것'으로 전망하는 응답은 48.5%로 나타남.

※ 해당 설문의 경우 응답자(인사담당자)의 주관적 평가를 묻는 문항으로, 정상출근 대비 재택근무시 생산성 비율임. 재택근무를 시행중인 기업과 시행중이지 않은 기업 모두에게 설문하였음.

<그림 6> 향후 재택근무 활용 전망



7

코로나19 이후 사무공간 활용 변화

▶ 거점형 오피스 신설 22.7%, 공유형 오피스 활용 18.2%

- 코로나19 이후 사무공간의 활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, 응답기업의 62.1%가 물리적인 변화가 없다고 응답
- 이 외에 '거점형 오피스 신설' 22.7%, '공유형 오피스 활용' 18.2%, '좌석수 축소, 업무공간 분리 등 리모델링' 9.1% 순으로 응답 (복수응답)

※ 해당 설문의 경우 재택근무를 시행중인 기업과 시행중이지 않은 기업 모두에게 설문하였음.

<그림 7> 코로나19 이후 사무공간 변화 (복수응답)



⇒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일정부분 정착된데다 거점형 또는 공유형 오피스를 활용하는 등 사무공간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사무실 출근체제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

- 조사 개요 -

1. 조사목적

한국경영자총협회의 「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재택근무 현황 조사」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주요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재택근무 운영 및 인사 관리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분석대상

공기업을 제외한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민간기업(2020년 기준)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응답 기업 66개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.

3. 조사기간 : 2022년 5월 17일 ~ 5월 27일

4. 조사방법

전화를 통한 타계식 조사와 이메일을 통한 자계식 조사 방법을 이용하였음.